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동행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간행물입니다

2017 vol.05

다섯번째호

동행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초여름의 밤 / 헤르만 헤세

천둥이 울린다.
정원의 보리수가
몸을 댄다.
날은 벌써 저물었다.

커다란 젖은 눈으로
한 줄기 번갯불이
연못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모습을 들여다 본다.

나달거리는 줄기 위에 앉은
꽃은
바람결에
낮 가는 소리를 듣는다.

천둥이 울린다.
무더운 훈기가 지나간다.
나의 소녀는 몸을 떨며
“당신도 무서우세요. 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연합회에서는 범죄피해자가 강력 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서 조속히 벗어나 사회로 복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 발생 직후부터 회복할 때 까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통합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 vol.05 다섯번째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간행물 <동행>
발행일 2017년 7월 31일
발행인 김갑식
발행처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157
전 화 02-596-1295, 02-586-1295
팩 스 02-3471-1295
홈페이지 www.kcva.or.kr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외부 필자의 원고는 연합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인사말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김갑식 회장 04

06 커버스토리

조현병 06
전문가 기고문 | 조현병/범죄와 마녀 사냥 _ 경희대학교병원 백종우 교수 10

12 BIG issue | 상해 편

폭행, 상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_ 5대 강력범죄 | 상해 통계 12
폭행, 상해 피해 극복 후기 14

16 희망스토리

사회적기업 이야기 |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희망카페 16
카페취업지원 피해자 후기 20
희망초대석1 | 수요자 중심의 피해자 지원 _ 서울지방경찰청 주명희 계장 22
희망초대석2 | 'VSE' 국제심포지엄 _ 대검찰청 김남순 과장 24

30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이야기

2017 연합회 상반기 활동 소식 30

36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야기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소식 36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50
법률제도 | 법률 홈닥터, 서민을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54
맛집 소개 | 새록새록 생각나는 그 맛, 그곳에 가면 맛이 보인다 56
영화 소개 | 가장 아픈 곳에서 피어난 가장 따뜻한 이야기, 소원 58
강력범죄 피해 관련 책 소개 61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62

M e s s a g e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피해자가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정과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올 여름은 더위가 일찍 찾아오기도 하고 폭우피해도 많았지만 유난히 초기에 가뭄이 심해 농민은 물론 전 국민이 심한 갈증을 느낀 바 있습니다.

흔히 회자되지만 미국 애리조나의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올리면 100% 확률로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정성을 다한 기우제의 원인도 있지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던 인디언 주술사를 레인메이커(Rainmaker)라고 명명했고 지면에 와서는 조직의 성과에 단비를 내리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일은 일정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안에 담겨진 숨은 노력과 정성이 합쳐져야 성과로 나타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순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 또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던 그 옛날 어느 인디언 부족의 정성이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필요하고 소중할지도 모릅니다.

전국 범죄피해지원센터는 물론 관련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과연 그 모든 것이 피해자를 위하고 또 피해자가 원하는 실질적인 내용인지 현 시점에서 그 진정성을 깊이 있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장발묘(助長拔苗) 즉 크게 자라라고 모를 뽑는다는 고사성어처럼 혹시 빨리 성과를 보려고 무리하게 다른 힘을 더해 도리어 그것을 해치게 된다는 모순을 한번쯤은 피해자 지원이라는 일에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은 법과 규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국범죄피해지원연합회는 올해 상반기에 일반인과 피해자의 시각에 맞춘 통합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여

통일성과 효율성을 강화했고 하반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10주년을 맞이하여 피해자 지원 활동에 대한 지난 10년을 조명하고 향후 10년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과 안심의 기업 에스원과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해 개최 예정인 제4회 '다링' 공익 캠페인 행사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기관이 피해자 지원에 대해 갖고 있는 역할과 특성을 고려하고 정립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국범죄피해지원연합회와 58개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조금 늦더라도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던 정성어린 마음으로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피해자가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정과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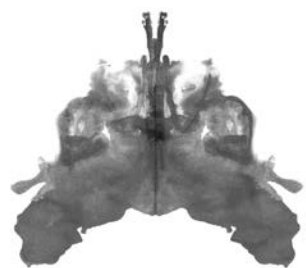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림과 인내심으로 5년 아니 10년이 지난 범죄피해로 인해 아직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내는 피해자를 위해 민간단체만이 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인적 교류와 유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센터의 종사자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늘 센터의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이해를 하고 계시는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모두 함께 어려움에 대해 격려하고 공감하면서 무더위를 이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식 회장
전국범죄피해지원연합회

s c h i z o p h r e n i a



조현병

최근 매스컴에서 ‘조현병’이라는 질환에 대해 자주 보도되고 있고,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내용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조현병이란 질병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이슈가 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조현병 [schizophrenia]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조현병(調絃病)’이란 용어는 2011년에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바뀐 것이다.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개명된 것이다. 조현(調絃)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아직까지 의료 현장에서 정신분열증이란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나,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 용어가 점차 정착되리라 예상된다.

원인

조현병은 단일 질환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증상들을 보이거나 다양한 원인을 가진 질환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조현병 환자들은 다양한 임상 양상, 치료 반응, 그리고 병의 경과를 보인다.

현재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도파민 등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의 이상, 변연계 및 기저핵 이상 등의 신경병리적 영역, MRI, MRS, PET 등을 이용한 뇌 영상학 연구 영역, 그리고 신경생리학적 영역 등이다.

증상

조현병에만 나타나는 특이 증상은 없다. 따라서 정신 상태 검사만으로 조현병으로 확진하면 안되며 다양한 내과적 질환과 타 정신과 질환이 감별되어야 한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과 환각이다. 망상의 내용은 피해 망상, 과대 망상부터 신체적 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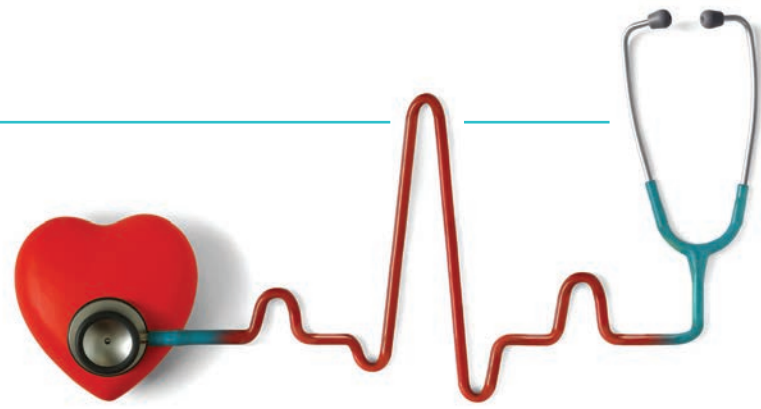
환각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은 환청인데 2명 이상의 사람이 환자의 삶이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식의 증세를 보인다.

와해된 언어와 행동을 보이고 움직임과 의사 소통이 심하게 둔화되는 긴장증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치료하지 않은 환자는 흔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한 자살 시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진단



Association)가 2013년에 개정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DSM-5)에 따른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특징적 증상

다음의 증상들 중 2가지 이상 존재하며, 이들 중 최소한 1개의 증상은 (1) 망상, (2) 환각 혹은 (3) 와해된 언어에 해당되어야 한다. 상기 증상은 1개월 중 상당 기간 동안 존재해야 한다. (단, 성공적으로 치료된 경우에는 기간이 짧을 수 있다).

- (1) 망상
- (2) 환각
- (3) 와해된 언어(예: 빈번한 탈선 또는 지리멸렬)
- (4)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 (5) 음성증상, 즉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또는 무의욕증

B.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의 기능 저하

발병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직업이나 대인관계 또는 자기관리와 같은 주요 영역의 한 가지 이상에서 기능 수준이 발병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하된다.(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경우에는 대인관계, 학업, 또는 직업 분야에서 적절한 성취를 이루지 못함)

C. 기간

장애의 징후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6개월의 기간은 진단 기준 A를 충족시키는 증상(활성기 증상)이 존재하는 최소 1개월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성공적으로 치료되면 더 짧을 수 있음), 전구기와 잔류기를 포함할 수 있다. 전구기나 잔류기에는 단지 음성증상만 나타나거나 진단 기준 A에 열거된 증상 가운데 2개 이상의 증상이 약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예: 괴상한 믿음, 흔히 않은 지각적 경험)

D. 조현정동장애와 기분장애의 배제

조현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기분장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제된다.

- (1) 주요 우울증 혹은 조증 삽화가 활성기 증상과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 (2) 혹은, 활성기 증상이 있는 기간 동안 기분삽화가 발생한다고 해도, 병의 활성기와 잔류기 전체 지속기간의 일부에만 존재한다.

검사

E. 물질의 생리적 효과 및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배제

장애가 남용 약물이나 치료 약물과 같은 물질의 생리적 효과이거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F. 자폐스펙트럼장애 등 발달장애와의 관계

만약 자폐스펙트럼장애나 아동기 발병 의사소통장애의 병력이 있는 경우, 뚜렷한 망상이나 환각이 적어도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에만(성공적으로 치료되면 더 짧을 수 있음) 추가로 조현병을 진단할 수 있다.



우선 조현병에서 보이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내과적 질환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분장애, 성격장애 등 타 질환과의 감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료

항 정신병 약물을 중심으로 한 약물치료가 치료의 중심이지만, 정신치료를 포함한 정신사회적 치료 접근이 통합될 때 더 나은 치료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입원치료는 진단적 목적, 약물 관련 이슈, 타인이나 본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할 때, 실제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등을 고려한다.

가족을 포함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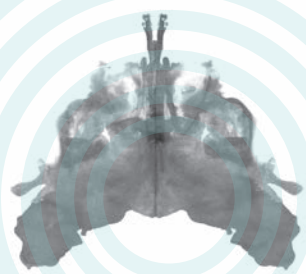
낮 병원(부분입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낮에만 병원에서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밤에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입원치료와 외래치료의 중간 치료 형태) 등은 입원과 외래 사이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시설로 유용하다.

과거 항 정신병 약물은 부작용이 심하고 음성적 증상에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효과와 부작용이 개선된 새로운 약물들이 임상 현장에 사용되어 치료 성과를 높이고 있다.

경과 / 합병증

조현병으로 첫 입원 치료 후 5년에서 10년 추적 관찰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10~20% 정도의 환자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절반 정도의 환자는 결과가 좋지 않아 반복적인 입원, 증상의 악화, 우울 삽화의 경험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든 조현병 환자가 좋지 않은 경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20~30%의 환자들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s c h i z o p h r e n i a



조현병

범죄와 마녀 사냥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총무위원장

중세 시기 가뭄이나 홍수, 전염병이 창궐하면 고통과 불안에 빠진 사람들은 그 원인으로 마녀를 지목하였다. 마녀로 의심받은 여성들은 고문을 당하여 죽거나 마녀임을 인정하면 화형에 처해졌다. 수백년간 이어진 이러한 야만의 대상이었던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은 주로 정신질환자들이었다고 보고된다. 조현병, 조증, 뇌전증 증세를 보인 여성들은 마녀로 지목되어 형틀에 묶인 채 화염 속의 재로 사라졌다. 1500년대 의사 요한 바이어는 마녀가 정신질환자이며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주장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심리학은 투사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모든 불행과 고통 앞에 발생하는 불안과 공포를 나 아닌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화살을 돌리는 것이 투사라는 방어기제다. 나에게 일어난 불행을 마녀의 탓으로 돌리며 수많은 무고한 사람이 희생된 것이다. 이후 진실이 은폐되고 희생양을 찾으려는 시도를 우리는 '현대판 마녀 사냥'이라고 부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우리나라지만 아직 우리의 화살은 무고한 사람을 향하기도 한다.

특히 조현병에 대한 언론 검색에서 우리는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편견을 여전히 목격하게 된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과 인천 여아 살인 사건 후 수많은 범죄와 정신질환에 관련한 기사가 쏟아졌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버지니아공과대학 총기 난사 사건 후 조울증, 조현병 등 여러 정신질환이 원인으로 언론에 이름을 올렸다. 6개월 후 공식 조사 보고서는 범인이었던 조승희의 정신 병력은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조현병은 과거에 정신분열병으로 불렸던 대표적인 정신질환이다. 흔히 피해망상과 환청을 주 증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통계는 이들이 일반인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준다. 범죄율은 일반인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도 일반인이 더 많이 저지른다. 실제 많은 중증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대인 관계에 자신이 없고 사회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을 다치게 할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조현병에 대해서 도파민을 낮추는 약물치료를 포함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이미 존재하고 치료받는 환자의 위험은 매우 작다. 그렇다면 왜 언론과 사회는 정신질환의 범죄에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일까? 그것은 정신질환으로 현실 검증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범죄가 이해되지 않고 충동적이므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류되어 일반 국민도 아무런 관계없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범죄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정신질환을 핑계 대는 것도 심각한 공분을 사고 있다. 드물지만 정신증의 재발 또는 급성기에는 자타해의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와 가족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병원에 있던 집에 있던 충분히 관리만 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장기입원을 줄이면서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Assertive Community Treatment)를 도입했다.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100명당 1명의 전문의와 10~15명의 정신보건 전문가를 배정해서 지역사회에서도 입원 수준의 집중적 케어를 받는 것을 의료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정신장애의 입원 필요성이나 위험성은 매우 낮아질 수 있다. 실제 필자가 방문한 피츠버그의 정신건강센터의 팀에서 100명 중 1년간 입원 환자는 1명 그것도 16일간 입원한 것이 전부였다. 우리나라에도 시군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한 명이 각종 증진사업까지 하며 100여 명을 돌보는 상황이다. 정신보건법의 개정으로 퇴원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진행되는 것을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는 이유다.

탈 수용화는 우리만 겪은 것은 아니다. 서구에서도 80년대부터 이미 겪었고 우리 사회도 이제는 해결할 시점이 되었다. 결국 조현병 환자가 위험한지 안전하고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 시스템이다. 마녀 사냥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 인권과 치료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갈지가 결정되어야 할 시점이다. 🐼

5대 강력 범죄 【상해】

폭행, 상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료출처 : 2015 <범죄백서>-대검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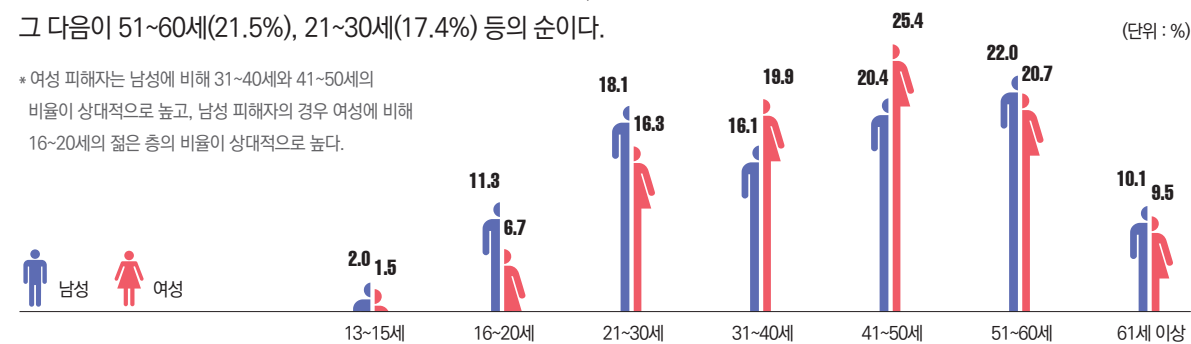


피해자의 성(性)과 연령

폭행·상해 범죄피해자의 63.7%는 남성이고, 36.3%는 여성이다.

폭행·상해 범죄피해자는 41~50세가 2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1~60세(21.5%), 21~30세(17.4%)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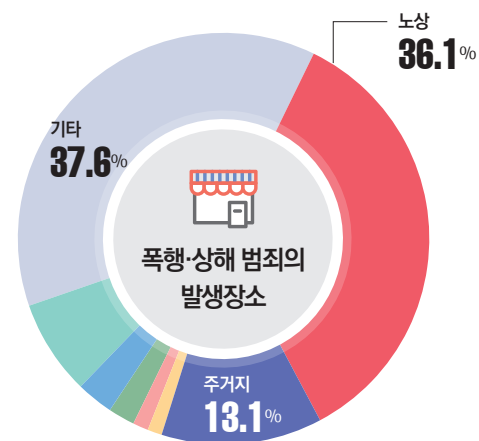
* 여성 피해자는 남성에 비해 31~40세와 41~50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 피해자의 경우 여성에 비해 16~20세의 젊은 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폭행·상해 범죄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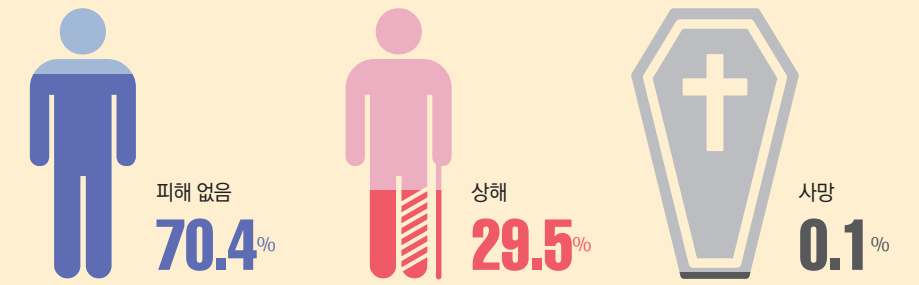
폭행·상해 범죄 발생장소

폭행·상해 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노상(36.1%)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13.1%), 유흥접객 업소(7.7%) 등의 순이었다.



신체 피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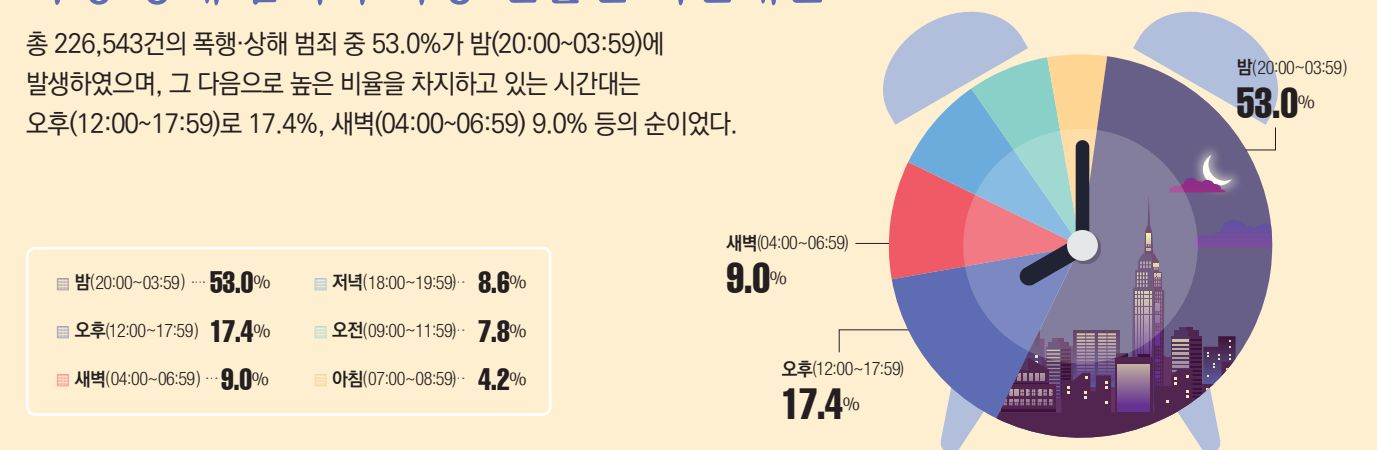
피해자의 70.4%는 폭행·상해 범죄로 인해 어떠한 신체 피해도 입지 않았다. 상해를 입은 경우는 29.5%이며, 사망한 경우는 0.1%였다.



▲ 폭행·상해 범죄피해자의 신체피해정도

폭행·상해 범죄가 가장 빈발한 시간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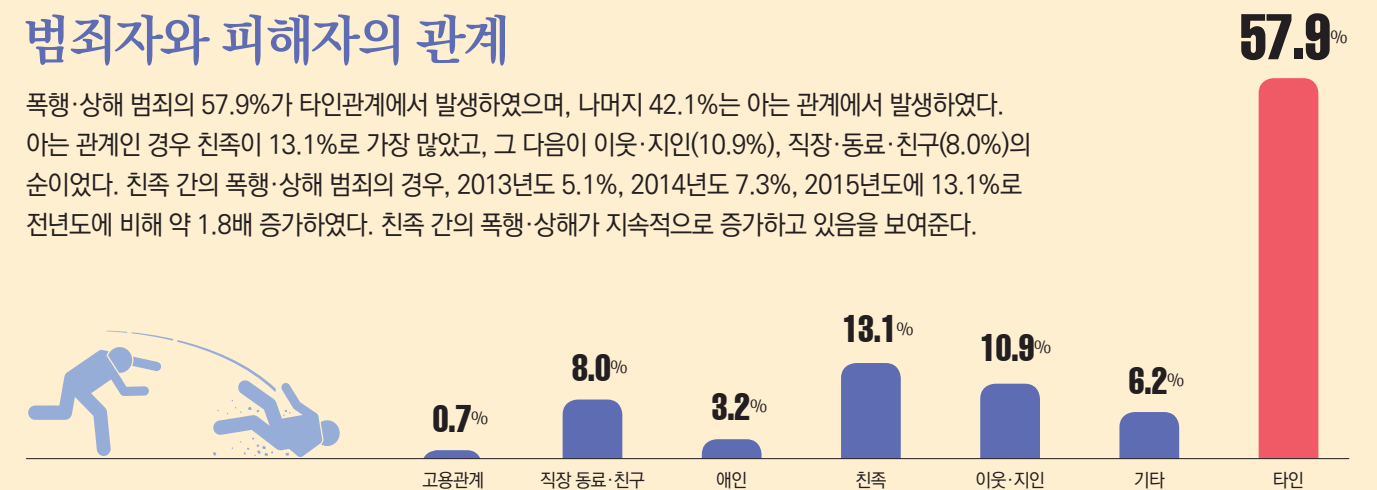
총 226,543건의 폭행·상해 범죄 중 53.0%가 밤(20:00~03:59)에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대는 오후(12:00~17:59)로 17.4%, 새벽(04:00~06:59) 9.0% 등의 순이었다.



▲ 폭행·상해 범죄의 범죄 발생 시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폭행·상해 범죄의 57.9%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42.1%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였다.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지인(10.9%), 직장·동료·친구(8.0%)의 순이었다. 친족 간의 폭행·상해 범죄의 경우, 2013년도 5.1%, 2014년도 7.3%, 2015년도에 13.1%로 전년도에 비해 약 1.8배 증가하였다. 친족 간의 폭행·상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폭행·상해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폭행, 상해 피해 극복 수기

글_채안나

아픔을 딛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다시 기억하기 싫지만 제게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제 모습을 돌이켜 보면 그대로 눈을 영원히 감아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척이나 좌절하고 분노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웃음을 찾아가고 있는 제 자신이 대견하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제가 범죄로부터 큰 아픔을 이기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동안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신 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분들과, 정부 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나와 같은 많은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고자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당시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2013년 3월 4일 새벽 한 범죄자로부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처참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눈과 코뼈, 광대뼈 등이 골절되고 온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가해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제게 주방 취업을 미끼로 저의 이름으로 업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주류와 운영상 채무를 모두 저에게 지우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행과 위협을 가하면서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마치 노예처럼 다루며 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단 하루도 폭언이나 폭행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수백 번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여기서 그만 두면 그 많은 채무를 다 제가 갚아야 한다는 약점과 주류 도매상에 진 외상채무금을 갚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가해자의 협박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저는 조폭 같은 가해자로부터 온갖 학대를 당하며 1년여간 경제적·신체적으로 피해를 당하다 결국 사건 발생 당일 신고로 그동안의 굶은 상처가 터졌습니다.

그때 저는 비록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하여야 할지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고, 어린아이가 부모도 없이 마치 맨 몸으로 세상 밖에 버려진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가족들을 볼 수도 없었으며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당시 조사를 담당하던 형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은 제게 어렵기만 했고, 피해자지원센터 역시 웬지 사무적이고 딱딱할 것만 같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런 제 생각과는 달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저와 같이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국가의 피해자지원제도를 자세히 소개해 주면서 치료비 전액과 생계비 지원, 법률 지원, 주거 지원, 심리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주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장기적인 학대로 정신적 피해와 폭행으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피해도 문제였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제게는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이 바로 가해자의 업소 부채를 제가 다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을 센터 사무처장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센터 사무처장은 주류 도매업소 대표와 구치소에서 가해자로부터 위임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가해자 가족을 센터로 불러 피해자 명으로 되어 있는 사업체 문제와 관련 한 사업자 명의 변경, 카드 가맹점 및 통장 변경, 주류채권 면책적 채무인수 등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고, 채무 면책은 물론 받지 못한 급여까지도 다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와, 자조모임을 통해 스스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한 암 진단을 받고 수술도 받았는데 이러한 지원이 늦어졌다면 암이 악화되어 지금은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덕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을 범죄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따뜻한 위로와 지지하는 마음은 물질적인 지원과 아울러 또 다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시 센터의 모든 분은 찾아볼 때마다 따뜻하게 반겨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얼른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겨울이면 다른 범죄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가고 봄이 오면 수목원이나 용인 에버랜드 같은 곳으로 소풍도 가곤합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좋은 분들과 지금도 연락을 이어가며 서로 힘든 경험을 극복하고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도와주겠다”는 슬로건이 우리나라 모든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희망카페 운영이 피해자의 자활을 돕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험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의미와 보람이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검찰청사 내에 위치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적기업

희망카페

Hope cafe

Q. 센터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크고 작은 일들로 많이 바쁘실텐데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희망카페'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A. 사실 희망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카페 운영이 피해자의 자활을 돕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험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의미와 보람이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검찰청사 내에 위치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 현재 카페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 카페가 설립되면서 근무자들을 어떻게 구성하셨는지요?

A. 처음 카페가 설립될 당시 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었던 범죄피해자 2명을 고용하여 총괄 관리하는 매니저, 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피해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죄피해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카페 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등 취





희망카페 수익금으로 범죄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람도 있지만, 희망카페에서 근무하면서 사람들과의 소통방법, 대인관계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업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갑자기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범죄피해자를 채용하여 당초의 운영 취지에 맞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근무하는 구성원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거나 이해 관계가 달라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 우려됩니다. 저희가 광주전남센터 희망카페가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인터뷰인데 앞서 인터뷰한 사회적 기업들 역시도 현재처럼 정착하는데 당초 생각보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광주전남센터 희망카페의 근무자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A. 카페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비스 직종이므로 이용하는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와 친절은 필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를 채용하다 보니 이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큰 피해자가 근무를 하며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웃는 것도 어색해하며 실수도 잦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며 나중에 자립하기까지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일이 직원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는 최대한 카페 직원들과 자주 소통하고 회식도 함께 하며 가족같이 지내고 있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Q. 현재 광주전남센터 희망카페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수익금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는지요?

A. 저희 카페는 검찰청사 민원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설립 당시에는 적자를 봤지만 자리가 잡히니 다음 해부터는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세금 등 이것저것 지출을 하고 나면 월평균 1백만 원의 순수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올해부터는 광주지방검

찰청에서 직원들에게 카페 할인 쿠폰을 배부하여 직원들이 더 자주 찾아주고 있으며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수익금은 연말에 기부금 계좌로 전액 후원 처리하여 100%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은 범죄피해자를 위해 쓰일 것이며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Q. 희망카페를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보람을 느꼈던 점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A. 사실 우리 피해자 분들 중에서는 사회적 환경과 가정 형편상 원래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연합회에서도 취업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희망카페가 자활과 취업을 위한 교육과 디딤돌 역할을 하는 카페 운영, 완전한 취업으로 이어지는 궁극적인 피해자 구조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또한 카페 수익금으로 범죄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기에 보람도 있지만, 희망카페에서 근무하면서 사람들과의 소통 방법,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지금까지 희망카페에서 함께 일했던 피해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을 갖고 계시거나 자립한 분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많은 분에게 희망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A양은 저희 카페에서 2년여 동안 총괄 매니저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여 사회 복귀의 의지를 키웠고 그 후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복지사를 전공하였습니다. 유관 기관에서 자원 봉사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피해자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말에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을 받으며 학



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분의 피해자에게 디딤돌 취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나가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Q. 향후 희망카페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A. 희망카페는 카페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의 자활 의지를 도와주는 취업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카페는 이름처럼 피해자에게 희망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회가 된다면 그간의 카페 운영 경험을 살려 희망카페 2호점을 개설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Q. 광주전남센터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타 센터나 사회적기업 운영자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계신 센터 종사자 여러분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A.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빛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신다면 보람도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뽕떡취미리는 배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목재 다루는 법보다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업무 과정의 어려움보다는 피해자 지원을 통해 그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슴에 안고 근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전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센터 가족 여러분 파이팅! 🌟

Hope cafe

카페 취업 지원

피해자 수기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다시 시작하는 오늘



안녕하세요. 저는 네 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혜연입니다.

저는 어릴 적 아빠의 폭력에 못 견디고 엄마가 저를 두고 집을 나가시면서 아빠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빠는 늘 저에게 “엄마를 데려와라”라고 하면서 많이 때리셨고 그럴 때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나중에 결혼을 하면 ‘꼭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라는 간절한 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를 폭행하였고 이혼을 생각하다가도 술을 안 마시면 잘 해주는 남편의 다른 모습을 생각하며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음에도 남편의 폭력성은 점점 심해졌으며, 딸아이가 태어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와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이에게까지 손을 올려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말리자 아이 대신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에서 예전 제 부모님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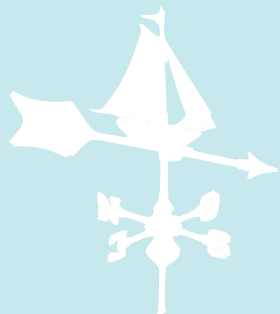
이런 일이 처음이라 우왕좌왕하던 저는 인터넷에서 범죄피해지원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저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두려워 방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센터를 찾아 갔던 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활짝 웃으면서 저를 맞이하여 주셨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이혼 절차도 모르고 아이를 혼자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 고민하던 저에게 가정폭력 상담소를 연계해주셔서 이혼 절차에 대한 조언을 얻었고 아이와 함께 지내는 데 들어가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제가 자립하여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해주시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이 가장 감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지원센터에서 전화가 오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반찬도 가져다주시고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도록 제주도 힐링캠프 등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늘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점점 선생님들이 친구처럼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근황을 묻는 사이가 되었고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다면 연락을 달라는 선생님들의 말씀에 더욱 힘이 났습니다.

지금은 취득한 바리스타 자격증을 이용해 카페에 매니저로 취직하여 지난 날을 잊고 저와 아이는 부족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 노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아니었다면 내 일을 갖는 것도, 아이와 둘이 살 용기를 갖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웠던 저의 삶에 센터 선생님들은 언제나 희망을 주셨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센터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수요자 중심의 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현장 중심,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되기 위해 경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함께 노력해나가길 희망합니다.



주명희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계장



피해자 전담 경찰관제도와 함께 경찰이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매진한 지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지원 가능한 여러 자원을 찾아 관련 기관과 단체로부터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며 피해자 지원이 정착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여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가장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경찰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경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발전적 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가 당면한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단계 더 도약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는 실제로 여러 어려움과 정책적 문제점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반해 피해자 정책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경찰관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학과와 여러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피해자지원기금 배분의 문제, 산재해 있는 관련 법률과 단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 등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 발생 초기의 지원 체계 부족은 우리 경찰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이와같은 어려움은 함께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현장 중심,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되기 위해 경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함께 노력해나가길 희망합니다.

또한 정책적 개선과는 별도로, 현장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하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최초 지원 시부터 최종적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아주 세심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범죄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피해자 중심주의는 공허한 슬로건에 그칠 것입니다. ‘도움을 준다’는 시혜적 접근과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접근 간에는 출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피해자 지원 설계는 다분히 공급자 중심, 국가 중심의 입장에서 진행되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 높

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금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도 수요자 중심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국가 기관은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대의 민간 재단으로서, 공급자 중심의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유연성 있는 지원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경직된 법률규정이나 관행, 절차에 얽매이기보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의 내적 충실과 외연 확장을 함께 추구하는 방법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현장에서 매일 사건을 접하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은 사건별로 천차만별인 피해자의 상황에 맞추어 서로 다른 여러 지원 단체의 제각기 다른 요건들을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맞는 지원 방안을 어렵게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지원 방법이 갖추어져야 하고, 피해자의 상황과 사안에 따라 지원 절차와 요건, 정도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형사 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 설계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회복이 이

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상호 긴밀히 협조함은 물론, 상호 업무에 대한 비판적 지지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국가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가 기관을 적절히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상호 연대하여 발전하는 관계가 될 때 피해자 지원 정책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단 하나의 목표는 가능한 한 더 많은 아이를 구하는 것이다.” 이는 애글렌타인 잭이 세계적인 아동구호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을 창립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이 구호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단체의 활동가들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가능한 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찰도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부단히 힘쓰겠습니다. 🌟



Symposium

Victim Support Europe

김남순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1

유럽범죄피해자지원협회(VSE) 연례회의 및 테러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참가

유럽범죄피해자지원협회(Victim Support Europe, 이하 'VSE'라 한다.)는 1990년 유럽 각국의 피해자지원 단체가 함께 설립한 모임으로, 2017년 현재 유럽 미국 등 26개국¹⁾에 있는 44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이 협회는 국제연합(UN)과 유럽연합(EU)의 범죄피해자인권 보호에 관한 정책 자문 기구 역할을 하며 유럽과 세계 각국에서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 인권국은 2015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25회 VSE 연례 회의에 기조 연설 국가로 초청받아 한국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은 바 있다. 민간 단체로는 전국범죄피

해자지원연합회가 2012년 11월 'VSE'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후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과 보호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틀간 아일랜드 더블린 Kilmainham Royal Hospital에서 아일랜드의 살인유가족지원단체(Advocates of Homicide, AdVIC), 범죄피해자권리보호동맹단체(Victims' Rights Alliance, VRA), 북아일랜드범죄피해자지원단체(Victim Support NI)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27회 VSE 연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에서 처음으로 참석하여 '한국의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제도'에 대해 박민표 검사장이 패널 발표를 하고, 범죄피해자지원제도 안내 영문 리플릿을 배포하여 한국의 선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세계적으로 전파하였으며, 'VSE' 임원진 및 각국의 참가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한국의 재외국민이나 관광객들이 유럽에서 범죄 피



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에 협조하기로 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연례 회의는 전체 회의와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는데 전체 회의에서는 ① 국경을 넘어서는 피해자 지원, ② 범죄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③ 범죄 취약 피해자지원과 지원 요청을 독려하는 방법, ④ 테러 범죄 피해자 지원 등을 논의하였고, 워크숍에서는 a) 범죄 취약 피해자,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범죄 피해자, 테러 피해자, 혐오범죄 피해자 등 피해 유형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b) 범죄피해자 심리 지원과 트라우마 치유 방안, c)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금 마련 방안, d) 범죄피해 보상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²⁾

이번 연례 회의에서는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정부 부처와 민간 단체 관계자들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과 제도, 지원 사례 등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참가자들이 공유하였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국제적인 협업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특히, 최근 유럽, 미국 등 세계 전역에서 테러가 빈발하면서 테러 피해자 지원에 있어 국경을 넘어서는 지원과 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

Victim Support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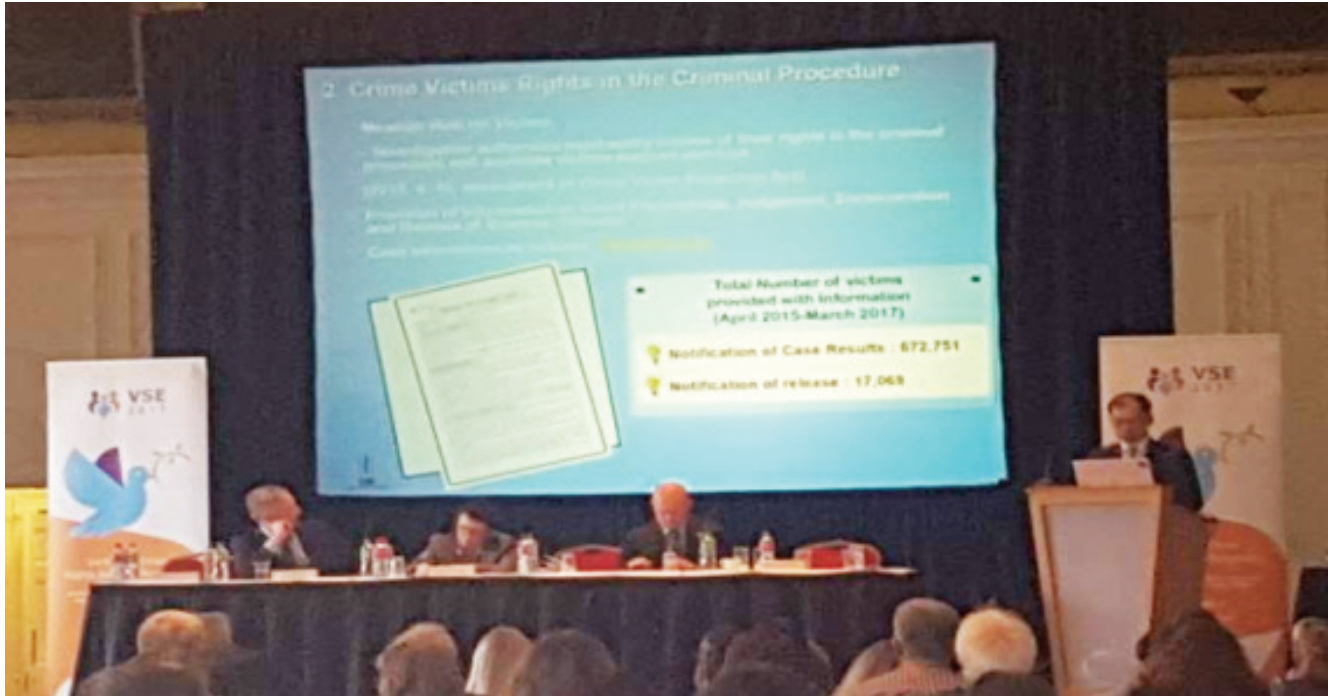
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Victims Support UK, 이하 'VS'라 한다.) 회장 마크 캐슬(Mark Castle)은 2017. 3. 런던 웨스트민스터사원 근처 차량 테러 사건에서 한국 관광객 피해자에 대한 영국의 지원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 피해자는 영국 런던 관광객이었는데 차량 테러로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영국 정부는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해주었고, 영국 런던 'VS'는 피해자 가족인 피해자의 남편과 딸, 아들에게 심리적 지원, 숙소 지원,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었으며 영국 외무성과 주영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귀국 절차와 귀국 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주었고 국제 방문자 범죄피해자지원 서비스를 통해 식권(healthy food vouchers)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해 주었다.

이와 같이 국경을 넘는 피해자 지원은 그동안의 한국 정부 및 전국피해자지원연합회와 영국 정부 및 'VS'의 유기적 공조 관계, 각국의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범국가적 피해자 보호 활동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테러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는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한 국제적 체제(International Framework for Dialogue and Information Sharing, IFDIS)에서 주관하는 테러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 연례회의의 전날 개최되었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참석하여 각국의 테러 피해 사례에서 피해자 지원 내용을 발표하고 효율적 지원 방법을 공유, 테러 피해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 구상에 있어 범죄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반영하고 중장기적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1)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체코, 불가리아, 몰타, 이탈리아, 스페인, 세르비아,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폴란드, 루마니아, 미국

2) 자세한 내용은 VSE 홈페이지(www.victimsupport.eu) VSE Annual Conference 2017 참조



프랑스에서는 최근 발생한 파리 테러(2015. 11. 13. 발생)와 니스 테러(2016. 7. 14. 발생)를 계기로 범정부테러피해자지원단(Interministerial instruction)의 출범과 테러 피해 대응책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특히, 테러 발생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신속히 확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범정부적 지원과 민간 단체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1차적으로 정부에서 위기 대응 체제(crisis phase)에 돌입하고 유관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며 2차적으로 사후 지속적 지원 단계(follow-up phase)에서는 유관 기관 단체들의 전문 인력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테러 사례의 경험과 대처 방법을 참고하여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둔다면 향후 국내에서 테러 사

건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영국 런던범죄피해자지원센터(VS) 방문

이번 출장 기간 동안 영국 런던 피해자지원센터(VS³⁾)를 방문하였다. ‘VS’는 영국의 대표적인 피해자지원 민간 단체인데 런던 ‘VS’의 경우 행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센터(Hallam House)와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사무소가 4곳(동부, 서부, 남부, 북부)에 있고, 기초 행정구역별로 하위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다. 런던 VS에는 고용된 직원이 300여명, 자원 봉사자가 약 350명 ~ 500여 명 정도 있고, 영국 전 지역에는 고용된 직원이 1,000여 명, 자원 봉사자가 4,000여 명 정도라고 한다.

런던 ‘VS’에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Next Generation’)이라는 피해자 지원 사건 시스템과 전문적인 피해자 지원 전담 직원에 의한 체계적인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Next Generation’ 시스템은 경찰의 사건 관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 경찰이 매일 사건 접수 시부터 24시간 내에 사건 관리 시스템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의뢰를 클릭하면 경찰의 사건 관련 정보가 파일로 압축되어 ‘Next Generation’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VS’에서는 매일 아침 그 전날까지 경찰로부터 지원 의뢰된 사건을 접수하여 상담 직원들에게 배분한다. 피해자 지원 담당 직원은 지원 의뢰를 접수한 때로부터 일반 사건(standard referrals)의 경우 자동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에 의해 24시간 내에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중대 범죄 또는 취약 피해자와 같이 우선 지원 의뢰 사건(enhanced priority referrals)의 경우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72시간 내에 전화로도 연락하여 지원을 한다.

지원 의뢰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담당자(case owner)가 지정되어 법무부의 범죄 피해 대응

및 회복(Cope and Recover) 모델에 따라 8가지 항목(피해자의 건강 상태, 안전 정도 등)에 대해 피해자를 상대로 필요 사항 및 위험성 조사(needs-risk assessment)를 하여 구체적인 지원 필요 사항을 파악한 후 피해자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 지원 기관으로 연계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통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일실소득,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포함한 범죄피해 보상금 지원은 범죄피해보상국(CICA)의 결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VS’에서는 피해자가 생계 곤란에 처한 경우 식품 교환권(food vouchers)을 지급하여 생계 지원을 할 수 있고 6회기 한도에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을 해준다. 그 외에도 범죄피해자진술서(Personal Statement)를 작성하는 방법을 도와주어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범죄피해보상국(CICA)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신청 절차를 돕는 역할을 한다.⁴⁾

외국인 방문객 범죄피해자는 ‘VS’의 국제 방문객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International Visitors Victim Service, IVVS)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는 통역 지원 서비스 등 외국인 범죄피해자들과 의사소통을 하여 그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Victim
Support
Europe

3) 1974년 영국 브리스틀에 최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 1987년에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선단체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 민간 독립 자선 단체로 등록, 자선 단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위원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이사진이 단체의 회계 및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4) 영국은 법무부 소속 범죄피해보상국(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 CICA)에서 영국, 웨일즈 그리고 스코틀랜드 지역의 범죄피해 보상계획(Crime Injuries Compensation Scheme, CVCS)에 따라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범죄 피해 보상금 내 용은 일실소득 지급금(loss of earnings payments)뿐 아니라 상해지급금(injury payments), 특별비용 지급금(special expenses payments), 사 별금(bereavement payments), 아동지급금(child's payments), 장례비용(funeral payments), 부양지급금(dependency payments) 등 다양한 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범죄 피해자 보상 및 지원을 위해 형사벌금(criminal fines), 정부 예산(government budget), 범죄 추가 부담금(Criminal surcharge,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범죄 유형별로 추가 지급하는 부담금), 교통범죄금, 경범죄범죄금, 징역임금부가세(prisons earning act, 교정 시설 내 노역에 대한 임금 중 일정 부분을 부가세의 형식으로 징수)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인권 보호가 더욱 확대되어 나가길 바라며

최근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 테러 등으로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가 국제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세계 최대 범죄피해자 지원 연합단체 중 하나인 유럽범죄피해자지원협회 연례 회의와 테러피해자 지원 국제심포지엄 참가, 영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문은 세계 여러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경험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적으로 네트워킹하면서 한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한국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활동은 1992년 4월 한국피해자학회 창립을 시작으로 한 학계의 노력이 시초였다. 이후 2003년 9월 김천·구미 피해자지원센터가 최초로 설립되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08년 9월 전국 검찰청 소재지에 설립된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합 조직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창립되어 민간 단체의 주도적 역할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법무부가 2004년 9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과 유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2008년부터 대검찰청에 피해자인권과를 신설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시작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0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제정으로 안정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었고, 2012년부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를 법으로 의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선진적인 피해자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법으로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유럽 등 선진 국가에 비하여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한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종사하는 관계자분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흘린 땀과 헌신으로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형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형사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외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가 피해 발생 직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전문 기관에 신속

피해자 지원 담당 직원은 지원 의뢰를 접수한 때로부터 일반 사건(standard referrals)의 경우 자동 문자 메시지 발송 시스템에 의해 24시간 내에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중대 범죄 또는 취약 피해자와 같이 우선 지원 의뢰 사건(enhanced priority referrals)의 경우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72시간 내에 전화로도 연락하여 지원을 한다.



하게 연계되어야 하고, 전문 기관에는 상시적으로 범죄피해자를 1대 1로 상담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전문 기관에서 활동하는 범죄피해자 담당자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성과 피해를 공감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 형사 절차 참여와 형사보상을 돕기 위한 지식, 피해자 지원제도와 지원 연계 기관 정보,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런던범죄피해자지원센터(VS)의 범죄피해 사건 지원 연계 시스템(Next Generation)과 피해자 상담·지원 시스템을 참고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2년부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지원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원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형사사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의 유기적 네트워크와 역할 배분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사사법 절차 전 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권리 강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정보를 형사 절차 단계별로 적시에 제대로 제공

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형사사법 절차 단계별로 사건 진행 상황 통지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지 등 정보 제공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화 추세로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의 관광, 무역 등 국제적 교류가 활발하고, 테러, 사이버범죄, 혐오범죄 등 국제범죄 피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국민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피해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이나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2018년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29회 ‘VSE’ 연례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의 피해자 지원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해외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아시아 지역의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참여하는 아시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설립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여 유럽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VSE)나 미국피해자지원연합회(NOVA)와 같은 세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연합단체들과 동행하면서 범죄피해자 인권 강화와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

Victim Support Europe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가 피해 발생 직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전문 기관에 신속하게 연계되어야 하고, 전문 기관에는 상시적으로 범죄피해자를 1대 1로 상담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KOREA
CRIME
VICTIM SUPPORT
ASSOCIATION

Story



권역별 센터 사무처장 회의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오랫동안 미해결된 사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 일상 업무 중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7. 1. 20.(금), 2017. 3. 9.(목)~10.(금) 2차에 걸쳐 권역별 센터 사무처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권역에 소재한 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무처장들은 제1차 회의(2017. 1. 20.(금), 대전센터)에서 2017년도 연합회 사업계획 중 인권대회 본 행사 외 부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 직원 보수교육의 필요성, 통합지원 네트워크 우수 지원 사례 전파 및 격려 방안 등 실현 가능한 분야를 논의 했습니다.

아울러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개최된 제2차 회의(2017. 3. 9.(목)~10.(금), 서울 북촌마을)에서는 경찰과의 초기 연계 방안, 자원 봉사자 교육, 실적 관리, 수시 홍보 강화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경찰과의 초기 원활한 협조 연계 방안을 위해 센터의 강점(사진 초기부터 지원 완료)을 살린 경찰과의 one-stop 협조 방안, 피해자 방문 상담 활성화 방

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자원 봉사자 교육은 연합회 부설 한국피해자지원연구소의 교육 주관 추진에 대한 의견과 전국 센터의 실적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수시 홍보를 위해 온라인 뉴스 채널을 통해 센터 소식 전파, 블로그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기탄없이 개진되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권역별 센터 사무처장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분야별로 관리하면서 실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통일성과 효율성을 갖춘 통합 홈페이지 구축·오픈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전국 조직으로서 환경과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성과 통일성을 갖춘 통합 홈페이지를 2017. 4. 14.(금)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통합 홈페이지는 모바일 및 기타 브라우저에서의 접속 환경 개선으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 회의와 설명회 및 9개월여의 오랜 추진 과정을 거쳐 새롭게 오픈되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새로운 통합 홈페이지 오픈에 따라 관리자 및 회원 관리, 메뉴 및 콘텐츠 관리, 상담 및 자원봉사자 관리 등에 대한 전국 센터 설명회를 2017. 4. 17.(월)에 가진 바 있으며 설명회에서는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사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연합회에서는 금번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 일반인과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춘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용 관리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피투게더 심포 두울

‘2017 전국센터 워크숍’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지난 2017. 5. 25.(목)~26.(금) 양일간 제주 아스타호텔에서 2017년도 전국센터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평소 피해자 지원이라는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전국 사무처장 등 종사자들에게 잠시나마 재충전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해피투게더-심포 두울’이라는 타이틀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직접적인 업무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닌 조직과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직 관리 능력, 소통 능력 배양, 역지사지적 생각과 친절의 의미에 대한 CS교육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 외에 전국센터 실장, 주임 등 참석자들은 별도로 마련된 팀 빌딩 시간에 팀워크 게임을 통해 마음껏 웃고 뛰면서 그간의 쌓인 피로를 해소하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전에 마련된 단합의 시간에는 수십 년의 연주 경력을 갖고 있는 부산센터 김영철 사무처장의 색소폰 연주 메들리가 이어져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아오르기도 하였으며, 이어진 업무 공유 시간에는 진주센터 강현임 주임이 홈페이지 게시 및 활용, 피해자 지원실적 관리 기법 등을 전파하고 정보를 나누는 실무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에서 1년에 몇 차례 접하기 어려울 정도의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그간의 피로를 풀며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 환경 속에서 센터가 피해자지원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업무적인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한 만큼 소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앞으로도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간에 소통과 이해를 공감하는 기회를 갖도록 내용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2017
워크숍



Happy



together



자긍심 up _ 다링 청소년 pride up 캠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2017. 2. 24.(금)~25.(토) 양일간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직접적인 범죄피해 또는 피해를 입은 가족의 일원인 청소년을 위한 다링 pride-up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해 뜻을 함께하며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보안 기업 에스원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범죄피해 가정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칫 위축되고 폐쇄적인 성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해 팀워크 강화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범죄피해 청소년들이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서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pride up

한국피해자지원연구소 회의 개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는 지난 2017. 2. 27.(금), 2017. 7. 6.(목) 2차에 걸쳐 한국피해자지원연구소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능기부형태로 2016. 10월에 발족한 한국피해자연구소는 금번 두 차례에 걸쳐 정기 회의를 통해 2017년도 연합회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2017. 11월 개최 예정인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10주년을 맞아 기념 세미나 개최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그간 장기간 논의되었던 체계적인 자원 봉사자 교육에 대한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근간 피해자지원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기관과 단체가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이의 실행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연합회에서는 피해자 지원이라는 중요한 명제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 연륜과 전문성을 갖춘 센터의 현실을 진지하게 직시하면서 한국피해자지원연구소의 전문성을 접목시켜 급변하고 있는 사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

2017 KCVA NEWS

서울중앙센터

2017년 제5기 대학생 자원 봉사자 발대식



서울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에서는 2017년 2월 22일 KCVC 제5기 대학생 자원 봉사자 발대식을 센터 이사

장과 운영위원, 법무 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13층 브리핑룸에서 개최하였다.

대학생 자원 봉사자는 센터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자 멘토, 법정 모니터링 등 법률 지원 활동, 기타 범죄피해자 경과 관찰과 지원 보조 활동의 역할을 하게 된다.

발대식에 앞서 대학생 자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사무처장의 센터 소개 및 봉사자 역할 등 자원 봉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멘토링 과정 및 활동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센터 이용우 이사장은 “자원 봉사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사를 시작하였고 세상에서 가장 고맙스런 피해자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훌륭한 일을 같이 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한 후, “미래의 여러분들이 있어 행복하고 항상 소통하며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선수가 되자.”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자원 봉사 대표가 피해자의 인권 존중, 비밀 보호 등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2017년 상반기 ‘힐링’자조모임



서울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에서는 2017년 5월 31일 범죄피해의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서

로의 아픔을 소통과 나눔을 통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심리적·정서적인 불안함을 극복하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17년 상반기 ‘힐

링’ 자조모임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에 있는 딸기농장을 방문하여 새콤달콤한 딸기를 따먹으며 직접 딸기를 수확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딸기잼도 직접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며 답소를 나누었다. 이어 도자기 마을로 이동하여 예술적인 정서를 함양하면서 각자 접시와 컵 등에 그림을 그리며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날 피해자들은 다양한 체험과 함께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어려움과 아픔을 잠시나마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울동부센터

사랑의 마음을 배달합니다!



서울동부센터(이사장 이지호)는 2017년 1월 2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강력 범죄 피해자 50개 가정에 TV, 밥솥, 이불, 라면, 방한화 등 총 1167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식에는 검사장 등 검찰 간부와 사무국장, 센터 이사장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범죄피해자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어려움을 나누며, 선물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검찰총장, 서울동부센터 방문 격려

서울동부센터(이사장 이지호)에서는 2017년 4월 6일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창사 신축에 따라 45년 서울 광진구 구의동 청사시대를 마감하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새로운 청사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과 봉욱 서울



동부검사장은 서울동부센터를 방문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

자고 센터직원들과 위원들을 격려했다.

서울남부센터

‘임상심리연구단’구축 및 피해자 사전치료시스템

(협력종합병원) 구조체계 확립



서울남부센터(이사장 이종문)에서는 2017년 5월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임상심리

사들로 구성된 자체 임상심리연구단(단장 송민수 박사(사무처장) 및 임상심리사 3명)을 발족해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자체 임상심리치료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였다.

임상심리연구단에서는 강력 범죄(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상해)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임상심리검사(외상 후 위기 체크리스트, Beck 불안척도, Beck 우울척도, 회복탄력성척도)를 통해 피해자 초기 척도를 분석하고 심리적 외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심리사가 개발한 치료 전문 프로그램(‘손으로 쓰는 내 마음’이라는 캘리그래피 기법)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 심리치료를 운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임상심리연구단을 구축한 송민수 단장(사무처장)은 “임상심리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초기에 자신의 신체를 자각하여 정서 처리와 자기 돌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후 2차 발생하는 간접외상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력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강모 씨의 경우 2017년 4월 6일 성애병원(협력종합병원)에서 사전 치료 시스템 구축 후 첫 시스템 이용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임상심

리치료까지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서울북부센터

‘동행’ 프로그램 및 ‘오순도순 힐링캠프’ 개최



서울북부센터(이사장 최주봉)는 2017년 6월 4일 중대범죄 피해자의 가족 간 지지와 결속력 강화를 통한 피해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 지원 프로그램인 ‘동행’ 행사를 개최하였다.

동행 프로그램은 2017년 센터가 신규로 도입한 사업으로 피해자의 편의를 고려한 장소를 미리 정하여 우리 가족 소개하기, 가족 서로 알기 퀴즈(상품 증정),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터놓고 이야기하기, 식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가족 간 소통과 지지를 회복시키는 찾아가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중대 범죄피해를 당한 가정을 대상으로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피해자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호응으로 신규 사업을 통한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올해로 자조모임이 결정된 지 6년째인 센터는 피해자 가족 30명과 센터 상담 전문가 및 관내 7개 경찰서 피해자 보호담당관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으로 2017년 6월 8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제12회 ‘오순도순 가족 힐링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 발생 이후 겪게 되는 우울증과 닳은 사람에 대한 두려운 증상을 개선하고,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스스로 회복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가족 모두가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잊고 밝게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종사자들이 새로운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

며, 오순도순 회원 중에는 한 번도 놀이동산을 가보지 못한 가족도 있어 더욱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고양파주센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상반기 힐링 체험 활동” 실시



고양파주센터(이사장 류은경)는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여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중 4단계에 해당하는 힐링 체험 활동을 2017년 4월 22일 실시했는데,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심신을 안정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여, 2017년 상반기 힐링 체험 활동을 포천에 위치한 허브아일랜드에서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약 36명의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참석하였으며, 도착 후 조별로 나누어 허브아일랜드 내 시설 등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것이며, 보다 많은 피해자가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 가정 대상 아동 집단상담 실시

고양파주센터(이사장 류은경)는 범죄피해자들의 심리 정서 안정을 위한 5단계 힐링 지원 프로그램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집단상담의 경우, 그동안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의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범죄들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건수 또한 증가하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을 기획 및 시행하였다.



아동 집단상담 대상자들이 대부분 편모 가정으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로, 모친이 생계를 위해 경제 활동을 해야 하

기에 자체적으로 자녀들이 보다 활동적이고 체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센터에서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들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017년 1월 24일 오전에는 아동들의 심리 안정과 협동력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오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글 대탐험 및 키즈나라’에 참가하여 아동들이 동물해설사와 함께 동행하면서 동물들을 체험하고, 실내놀이터에서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동시에 아동들의 모친들은 서로의 어려운 처지와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피해자 가정의 보호자와 아동들이 모두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되었다.

고양파주센터에서는 향후에도 단순 프로그램이 아닌, 회기별 프로그램으로 확대 및 개선하여 하반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예정이다.

인천센터

심리 상담 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식 개최



최하였다.

이날 센터에서는 심리 상담 지원 강화를 위해 인천외국인인력지원센터, 인천광역시수화통역센터,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협회,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각 기관

인 천 센 터 (이 사 장 안병문)에서는 2017년 5월 18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4개의 기관과의 협약식을 개

대표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은 범죄피해자 중 심리 상담에 있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업무 협약 기관에서 피해자 상담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피해자 회복에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협업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유대관계를 강화하기로 협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수원센터

‘2017 정기총회’ 개최



수 원 센 터 (이 사 장 이순국)에서는 2017년 2월 9일 ‘2017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정기

총회에서는 2016

년 범죄피해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의료지원위원회를 발족하여 수원지방검찰청과 범죄피해지원센터, 관내 22개 의료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정이 여의치 않은 범죄피해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사전 지원’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 센터에서 위탁 운영되는 수원스마일센터 개소로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수원 지역의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전달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범죄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함께 약속하였다.

성남광주하남센터

멘토와 함께하는 자조모임 힐링캠프

성남센터(이사장 박봉용)는 2017년 5월 11일 서울대공원에서 멘토와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가졌다. 이날 힐링캠프에서는 가천대 통합발달심리센터의 임나영 교수의 미술심리치료 특강을 듣고, 접시에 그림을 그리며 심리 안정을 도



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대공원의 동물원과 테마가든(식물원)을 방문하여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는 「그린」 자조모임(멘티·멘토)의 따뜻한 만남을 통해 공감대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자연 경관과 5월의 꽃향기를 느꼈으며, 심신 수련과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새로운 희망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폐쇄적 환경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의 정서 회복과 함께 집단 심리치료로 인한 정서 순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이천양평센터

여성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여주이천양평센터(이사장 임영현)에서는 2017년 2월 14일 센터 사무실에서 기부받은 의류 30벌을 여성 범

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범죄피해로 인한 두려움을 미술치료 등 심리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간구하고 있다.

또한 2017년 2월 9일 피해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겨울용 이불을 전달하여 피해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양센터

사랑의 손잡기 후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안양센터(이사장 문승현)에서는 2017년 2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5층 중회의실에서 안양지청과 센터의



‘사랑의 손잡기’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안양지청 전 직원들은 자

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매월 지속적으로 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 가정에 전달하였으며, 아울러 지청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사건진행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2017년 ‘힐링팜(주말농장)’ 개장식



안양센터(이사장 문승현)에서는 2017년 4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김영중 지청장과 간부들, 안양보호관찰소와 농협 안양시지부(지부장 이대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산동 힐링팜 주말 농장에서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개장식에서 힐링팜의 운영을 지원하여 준 안양보호관찰소와 농협 안양시지부, 안양시 농정지원단 관계자와 센터 운영위원, 분과위원 등 35여 명이 참석했으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자조모임인 「울타리」회원 12가족이 감자, 상추, 가지 등의 모종을 심으며 힐링팜 주말 농장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릉센터

피해자 가정 방문 활동 활성화

강릉센터(이사장 이상윤)에서는 원거리에 거주하여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담 및 생활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매월 수회 피해자를 방문하고 있다. 센터의 지원을 받아 피



해를 회복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센터직원, 위원 및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방문하여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

고, 지원을 받기 위해 실태 조사가 필요한 피해자들도 수시로 만나 상담하고 있다.

원주형성센터

강원 지역 센터 합동 홍보 캠페인



원주형성센터(이사장 이규남)는 2017년 5월 16일 강원도 횡성군 종합운동장에서 강원도 내 센터(춘천, 강릉, 속

초, 영월, 원주, 횡성) 사무처장 및 직원, 자원 봉사자가 함께 제52회 강원 도민 체전을 맞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강원도 지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강원도 내 5개 센터의 협력을 통해 강원 지역 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센터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행사는 행사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리플릿, 홍보 풍선 및 기념품 배포, 담당 법무관의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영월센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

영월센터(이사장 엄오섭)에서는 2017년 4월 14일 범죄 피해로 사지마비를 당한 피해자 가정을 대상으로 영월센터위원 및 정선군 소비자연합회회원 등 총 14명이 참여하여 사랑의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피해자는 부인과 이혼한 후 자녀 두 명과 함께 어려운 살림을 꾸려오고 있었으며 형편상 집을 돌볼

곳에 쌓인 먼지와 누수로 인한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곰팡이 제거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참여한 위원 및 회원들의 노력으로 피해자 가정에 쾌적한 환경 및 안정감을 제공하였으며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센터에서는 갑작스런 가정의 사고로 인해 당장 생계비를 걱정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생필품을 지원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하였다. 그 밖에도 아버지의 사고로 우울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에게 밝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된 도배 장판을 교체하였고 피해자 가족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대전센터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내 경찰서와의 업무 협약



대전센터(이사장 이두식)에서는 2017년 2월 23일 둔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심은석) 및 2017년 3월 14일 세종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대전센터는 대전둔산경찰서 및 세종경찰서와 협력하여 그동안 강력 범죄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 체계와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더욱 유기적이고 발전적인 협력을 할 예정이다.

홍성센터

상담위원 역량 강화 교육



홍성센터(이사장 최현숙)는 2017년 4월 7일 홍성지청 회의실에서 상담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집단상담, 공예 체험 활동,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교육 등 상담 지원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실무교육을 진행해 상담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범죄피해자 사후 관리를 위한 지역 상담지원위원들이 2인 1조로 팀 구성이 되어 분기별로 피해자가정을 방문상담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논의되었으며 범죄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문화 공연 관람을 정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자조모임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공주청양센터

함께하는 파랑새 동행 체험 프로그램

공주청양센터(이사장 안병권)에서는 2017년 6월 8일 범죄피해자와 이들을 담당하는 자원 봉사자 간에 소통하고 힐링



하는 동행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작년 6월 (여성) 상담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함께하는 파랑새」팀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과는 별도로 범죄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 날 수 있게 매월 이들 가정을 방문하여 대화와 상담을 통해 실질적 사후 돌봄을 담당하는 자원 봉사자 모임이다. 이날 멘토와 멘티로 구성된 참가자 30여 명은 공주 계룡면 하대목장에서 '피자 만들기' 체험, 관측사 방문, CJ제일제당 논산공장 견학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논산부여계룡센터

2017년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및 원예치료



논산부여계룡센터(이사장 신형철)에서는 2017년 3월 16일 범죄피해자 자조모임과 원예치료를 실시하였다. 원예치료는 정원과 경작을 뜻하는 원예와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약물투여나 수술 없이 고친다는 뜻의 치료의 합성어인데, 원예치료에는 정원 가꾸기, 식물 재배하기, 꽃을 이용한 작품 활동 등이 포함되며 이런 활동을 통하여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꽃이나 식물의 향기를 맡음으로써 정신적인 안정을 얻어 삶의 질, 자아 존중감, 행복감, 만족감 등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이 감소되는 심리적 효과가 있어 피해자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농촌 지역 범죄피해자 일손 돕기 자원 봉사



논산부여계룡센터(이사장 신형철)에서는 2017년 3월 16일, 1년 전 범죄피해로 인해 남편을 잃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힘들어 하는 피해자에게 치유 프로그램과 1:1 심리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2017년 3월 28일,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가 고추 파종 시기가 다가왔으나 남편이 사망하여 밭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호소하여 센터에서는 이사장 및 위원 13명이 피해자 고추밭에 찾아가 땅고르기 및 비닐 씌우기 작업을 하였다.

제천단양센터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단양경찰서 간담회 및 교육



제천단양센터(이사장 장창식)에서는 2017년 4월 6일 단양경찰서 회의실에서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단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강력계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센터의 역할과 하는 일 등에 대하여 이규식 사무처장이 전달교육을 실시하였다. 센터와 관내 단양 경찰서는 향후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고 정상

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문화의 거리에서 홍보 활동



제천단양센터(이사장 장창식)에서는 2017년 6월 8일 제천 문화의 거리 및 시장에서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및 교수, 센터 홍보분과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였습니까? 우리가 돕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대외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대구서부센터

범죄피해자 가정으로 찾아가는 「파랑새 가정 방문 상담」



대구서부센터(이사장 박성호)에서는 심리상담 이후 일정 수준 안정기에 접어들거나 범죄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으나, 방문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가족의 연령대,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파랑새 가정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하는 도중에 목과 오른쪽 팔, 왼쪽 손가락을 칼에 찔려 수술을 하고, 약 40일간 입원 치료 후 퇴원을 했음에도 성대가 손상되어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고 오른팔은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자녀를 돌보는 일은 물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피해자에게 본 센터에서 주 1

회 가정을 방문하여 약 두 달간 반찬과 청소, 빨래 등을 해주었다. 또한 노후된 욕실 수납장을 교체해주는 등 따뜻한 관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는 범죄피해 이후 바뀐 환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경북북부센터

‘일가족 자살 사건’ 마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경북북부센터(이사장 김해동)는 2017년 5월 10일 오후 4월 안동 일가족 자살 사건으로 상처를 입고 위축되어 있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마을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에서 일어난 일가족 자살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어려운 이웃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보듬어주지 못한 도의적인 자책감으로 마음이 위축되어 마을 주민 전체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심리치료와 웃음치료 및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집단 심리치료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삶을 함께 영위하지 못하고 영면하신 일가족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풍선에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더 좋은 곳에서 행복하세요.” “천당 가세요.” 등의 문구를 적어 하늘 높이 띄워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영면과 명복을 빌어주는 행사를 갖기도 하였다.

김해동 이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마을공동체가 입은 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북북부센터 전문 상담원의 방문 상담으로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모든 마을 주민의 빠른 심

리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경주센터

범죄 피해자 힐링을 위한 ‘연극(귀로) 관람’



경주센터(이사장 이춘상)에서는 2017년 4월 14일 경주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범죄피해자 세 가정 8명과 함께 연극 “귀로”를 함께 관람하였다.

공연전 중국음식점에서 가족별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식사 후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답소를 나눈 후 연극을 관람하도록 해 가족 친구와 나들이를 통한 힐링 시간을 갖도록 지원했다.

경주고등학교 동문 모임인 화랑회의 후원으로 입장권을 구했으며, 이는 일반인들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6년, 2009년, 2010년 피해자 지원 요청이 접수된 3가정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돕는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센터가 피해자들의 큰 울타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포항센터

학대 및 방임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음악 활동 프로그램’

포항센터(이사장 나주영)에서는 2017년부터 신체·정서적 학대로 불안한 성장기를 겪은 학대 및 방임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악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갈등구조를 겪었을 때 음악 활동을 매개체로 정



서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악기 연주를 통해 그간 내재되어 있던 심리적 억압, 스트레스, 폭력성 등 부

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하여 자존감 향상 및 사회 소속감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중 연주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김천구미센터

범죄에서 벗어날 희망의 선물로 풍성!!!



김천구미센터(이사장 정근재)는 범죄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매년 명절에 풍성한 선물을

을 전달해오고 있다.

2017년 1월 24일 김천지청 관내 범죄 피해자 40가구를 선정해 쌀 10kg, 라면, 화장지, 김, 스펀세트, 사과 등 풍성한 물품을 피해자 가정에 직접 전달해 민속 명절을 맞아 가정에 훈훈함과 따뜻한 설맛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천구미 지역 내 대학생 법정견학 인솔

김천구미센터(이사장 정근재)는 2017년 5월 2일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법정 재판관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견학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법원 곳곳을 두루 방문하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습득하고 실전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재판에 참관하여 검사, 변호사의 변론 내용과 판사의 판결 등 피고인과 증인의 태도와 증언들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한편, 재판 후 판사와의 면담 시간을 가져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도 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상주문경예천센터

피해자 지원 통합사례회의 실시



상주문경예천센터(이사장 황정환)는 2017년 4월 20일 고아원에 입소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심리 상담을 통해 얻어진 검사 결과와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를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의미와 목적을 두었다.

피해자지원 업무협약 실시



상주문경예천센터(이사장 황정환)는 2017년 상반기 이성현정신건강의학과, 이음심리상담센터,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 해가빛심리상담센터, 마음자람아동청소년상담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센터에서는 유관기관

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피해자 발굴과 지원 방향 및 각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부산센터

2017년 범죄피해자 인권교육 지속 개최



부산센터(이사장 구정회)에서는 2017년 3월부터 센터의 특화사업으로 부산지검과 협력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는 물론,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기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범죄피해자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울산센터

2017년 정기 총회 및 인권대회



행사에서는 범죄 현장 수습과 청소, 범죄 피해자 장례비 지

울산센터(이사장 손영재)에서는 2017년 4월 4일 울산 남구 옥동의 문수컨벤션에서 인권대회 및 정기 총회를 개최하

원을 신속히 의뢰·처리해 준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학대를 당해 우범자까지 된 학생을 장기간 심리치료한 사례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노동 착취를 당한 한 피해자가족이 센터를 통해 지원 받은 사연도 편지로 소개되어 많은 감동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이날 법무부와 울산시, 양산시의 지원금 총 1억 7000만 원도 전달되었는데 행사에는 김기현 울산시장, 한찬식 울산지검 검사장, 나동연 양산시장 등과 센터 후원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다.

S-OIL/고려아연 지원금 전달식



아연이 저소득층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울산센터에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전달식에는 신현욱 S-OIL 울산Complex 수석부사장, 백순흠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손영재 울산센터 이사장, 류지열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이 참석했으며 이날 전달된 지원금은 울산 지역 저소득층 범죄피해자의 의료비 및 생계비, 심리치료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신현욱 S-OIL 수석부사장은 “뜻하지 않은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범죄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재기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센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 책임자 회의 개최

경남센터(이사장 이상연)는 2017년 4월 25일 창원지검 4층 소회의실에서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피해자지원 전담 검사, 피해자 지원관, 관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피해자 지원 전담 경찰관, 관내 성폭력상담소장, 관내심리상



담치료센터 센터장 등 참석자가 상호 협업하여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원상 회복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통합지원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책임자들은 향후 더욱 상호 협업하여 범죄피해자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진주센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결의대회 개최



집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희종 지청장 등 지청 간부와 등불 이사장 등 위원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등불 활동 사항에 대한 영상물 시청에 이어 범죄피해자 지원에 공이 큰 이창목 위원 등 18명에게 검사장, 지청장, 이사장 표창장과 이창식 농협은행 진주시지부장 등 20명에게 신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심리 상담 전문가인 장미연 상담사의 상담 기법 특강, 상담지원위원회 김일선 자원봉사위원의 청소년 피해자 지원 우수 사례(멘토링) 발표,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문 낭독, 대회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재홍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범죄피해자들이 홀로 외로워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진주센터 등불(이사장 구재홍)은 2017년 3월 30일 진주지청 대회의실에서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등불이 되자고 얘기했다.

조기 피해 회복을 위한 문화 체험



진주센터 등불(이사장 구재홍)에서는 2017년 6월 2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조기 피해 회복을 위해 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문화 체험 행사에는 상해 피해자 등 25명과 자원 봉사자 5명 등 30명이 참여하여 남해에 있는 원예예술촌에서 머그잔 만들기, 다랭이마을 견학을 한 데 이어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했다. 참석자 중 살인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A씨(67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평생 여행 한 번 해보지 못했는데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되어 매우 뜻깊고 즐겁다고 하였다. 한편, 진주센터에서는 문화 체험 행사를 비롯하여 희망메시지 전송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돕고 있다.

밀양창녕센터

쓰레기 더미 속 장애인 가정, 통합지원공동네트워크와 함께 새 출발!

밀양·창녕센터(이사장 심재극)에서는 2017년 3월 14일 밀양지청 소회의실에서 창원지검 밀양지청 김현웅 검사를 비롯한 밀양시청, 밀양경찰서, 밀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의 실무자 8명이 모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5년 동



안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방치한 혐의로 송치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진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피해자 주거지 청소 및 방역을 실시하고 도배·장판 시공, 현관문 및 싱크대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을 지원하였다.

이후 3월 22일에는 제2차 통합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지원을 점검 및 평가하였으며 향후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공동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 의료 지원, 중증장애인 도우미서비스 제공, 주 1회 이상 파출소 대원 순찰 방문 등 다각적인 피해자 보호 지원과 피의자 재범방지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피해자의 건강한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전남동부센터

불우 환경 지역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후원



전남동부센터(이사장 정웅길)에서는 2017년 1월 23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가정 자녀들을 돕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기업과 개인을 후원자로 발굴하여 2017년도부터 1년간 대상자 8명에게 매월 20만 원씩 후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는 센터 위원인 금호퍼앤비화학(주) 공장장인 정영호 위원의 후원으로 실시되었으며,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거 환경 개선 집 수리 봉사



전남동부센터(이사장 정웅길)에서는 2017년 5월 23일 우주종합건설(주) 대표인 김영태 위원이 피해자의 부

친은 치매로 인해 자택에서 간병 중이고, 모친이 운영하는 건강원의 일을 도와주며, 여러 가족이 비좁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센터 김영태 위원은 본연의 사업 때문에 일정이 바쁘더라도 불구하고,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직접적인 집 수리에 나서 1,000여 만원을 들여 도배, 장판, 싱크대, 전등까지 교체해주며 피해자 가정을 위로하여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전주센터

분노조절장애 피해자 현장 보호 및 사례 회의



전 주 센 터 (이 사 장 홍종길)에서는 2017년 5월 22일 분노조절장애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노상

에서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를 목격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대해 이유 없이 분노하여 폭언과 난폭한 행동을 하며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심리를 순화시키고 안정시켜주었다. 그 후 피해자는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모욕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청문감사실 피해자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요청하였다. 이에 담당 수사관, 수사팀, 지구대 대장 등과 사례 회의를 하여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전주완산경찰서 피해자 담당관은 피해자가 앞으로 심리치료를 잘 받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훈훈한 미담 사례를 보여 주었다.

군산익산센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자조모임 및 힐링캠프



군산익산센터(이사장 김원요)에서는 2017년 3월 27일과 4월 2일 이틀에 걸쳐 프랑스 자수로 에코백을 꾸미는 시간을 가졌다.

피해자들은 프랑스 자수를 놓으면서 최근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의 집중력을 스스로 느끼고, 무념무상의 상태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정말 좋았다는 말과, 자신의 마음이 산란할 때 꽃의 모양도 함께 어수선해지더라며 매사에 집중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직접 만든 수를 가방에 장식하여 멋진 품으로 들고는 아이들처럼 좋아하기도 했는데, 한 피해자의 “센터에나 와야 이런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말에 모든 피해자가 공감하며 박수를 치기도 하였다.

4월 27일에는 ‘꽃길 따라 내 마음도~’라는 주제로 태안 세계튤립축제와 만리포 해수욕장, 해미읍성에서 제4차 자조모임을 진행하면서, 실컷 웃고, 실컷 이야기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튤립정원에서 꽃보다 환하고 아름답게 웃었고, 만리포 해수욕장의 시원한 파도와 바다를 보면서 “가슴 속이 시원해진다.”고 하고, “파도여 나의 마음속 덩어리 다 끌고 가버려라.”고 소리치기도 하였으며, 잘 정돈된 해미읍성에서는 마음을 다독이면서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피해자들은 이날 행사에 동행한 법무관에게 법률 절차 등 궁금했던 점을 묻기도 하는 등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법률정보의 제공을 통해 피해자에게 좀 더 다가가는 센터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제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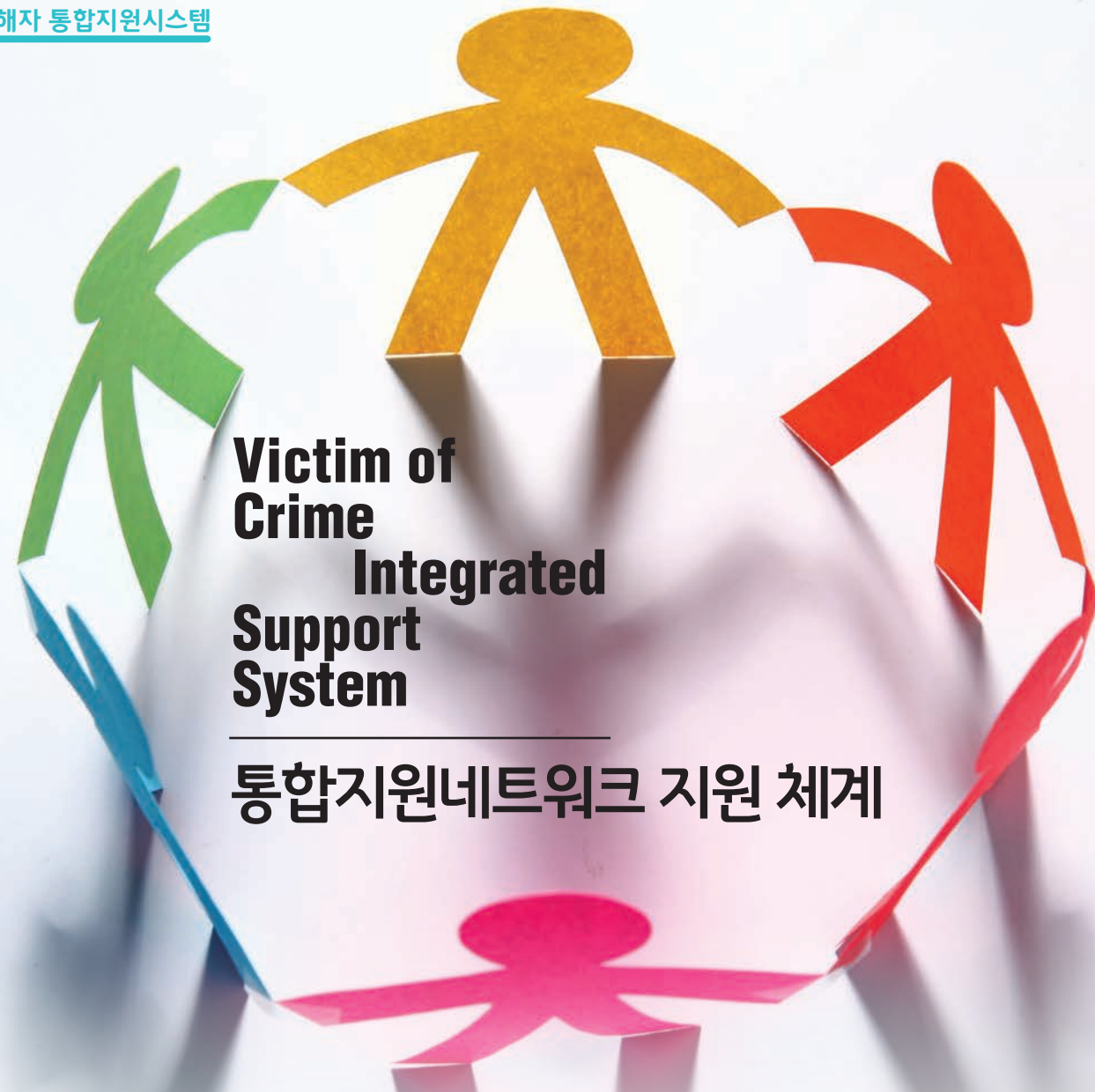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간담회



제주센터(이사장 강재업)에서는 2017년 5월 16일 이석환 검사장 등 검찰간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고창덕 자치행정국장과 담당 계장, 그리고 센터에서는 강재업 이사장을 비롯한 감사, 위원장, 이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애로 사항과 문제점 등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석환 검사장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피해자 지원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약속하였으며, 이에 대해 고창덕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피해자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





개념 및 추진 배경

통합지원의 개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체계’(Victim of Crime Integrated Support System)라 함은 범죄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에 대한 다양하고 개별적인 욕구 해결을 위해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생활 전반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자원을 발굴·연계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복구를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추진 배경

- 타인의 범죄행위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전의 경제적 지원 중심의 보호·지원 체계로는 신속한 피해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음.
- 2010년 이후 정부 차원의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와 피해자들의 권리의식 변화로 서비스 욕구가 다양화·개별화되었음.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제2차 기본 계획」(2012년~2016년) 및 「2013년도 시행 계획」에 의거 피해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자원의 발굴·연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One Stop 통합지원이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되었음.

기대효과

사회서비스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전달 체계를 다변화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One Stop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복구를 촉진할 수 있고, 공공과 민간 연계 활성화를 통한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역량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HUB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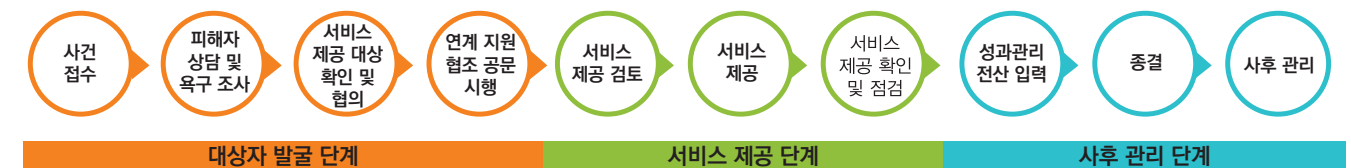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접근성 및 연계성 확대
- 중복 지원 방지
-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업무 효율성 증대

통합지원네트워크 지원 체계



통합지원네트워크 지원 절차

온라인 연계 지원 절차



통합 사례 관리 모형 지원 절차



통합지원네트워크 지원 절차

범죄피해자 ONE STOP 서비스(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통합지원네트워크 추진 효과

피해 초기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 가능

범죄피해자의 경우 피해 초기 전문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관련기관의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피해초기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

중복 지원 방지와 지원 형평성 제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으로써 지원 기관 간 중복 지원이 발생되고 일부에 편중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

통합지원 네트워크 협의회 구축

지역 위기 관리 능력 향상

지역에 대형 재난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전문 인력풀의 구축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함

피해자 중심의 지원 서비스 강화

피해 지원 기관이 일원화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공동의 대응 매뉴얼 또한 구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체계적인 지원 문제 해결

전국 센터 통합지원네트워크 구축 총현황

구분	참여 기관													
	지자체	검/경찰	의료	다문화	교육	아동/노인 보호	건강	상담/심리치료	보호 시설	복지	법률	소방	노동	기타
합계	164	223	212	113	78	77	12	334	74	138	73	48	11	63

전국 센터 통합지원네트워크 지원 현황(2016년도)

구분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상담 / 심리치료
지원건수(건)	1,176	1,336	358	68	4,649
금 액(원)	1,246,459,118	1,092,202,725	152,008,000	187,588,300	106,216,050

구분	간병비	교육/취업지원	주거환경개선	범죄현장정리	법률
지원건수(건)	93	10	16	3	1,135
금 액(원)	58,370,670	5,623,480	26,022,150	700,450	1,349,200

구분	주거지원 (이사,이전 포함)	임시숙소	신변보호	기타	소계
지원건수(건)	92	13	125	389	9,463
금 액(원)	78,001,750	1,470,000	1,595,606	93,070,160	3,050,677,659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 활용 사례

사건 개요

부모 없는 가해자를 어릴 때부터 양육해준 피해자에게 도박 빚 800만 원을 갚아달라며 행패를 부리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거주하던 지하 주택에 방화를 하여 주택 내부가 전소된 사건

지원 경과



연계 지원 Flow



연계 지원 내용

OO경찰서· OO지방경찰청에서 지원 의뢰	센터 청년위원회 자원봉사자 사건현장 정리(화재폐기물 정리)	OO소방서 의용소방대 화재 폐기물 처리	OO지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법률 지원
OO사회복지협의회 주택수리 봉사단 1,200만원 상당 주택 수리 완료	종교단체 300만원 상당 가전제품, 가구일체 지원	OO종합사회복지관 및 소방서, 경찰서 30만원 상당 생필품 지원	센터 긴급생계비 총 200만원 지원 (4월:100만원 1차지원 / 6월:100만원 2차지원)
가해자 집행유예 석방예정에 따른 피해자 보복범죄 우려로 센터 지원 요청	센터에서 법원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 요청 → 연기결정	검찰청 주거이전비 40만원 지원으로 피해자 주거이전 완료	가해자 석방 (피해자 안전하게 거주 중)

제도의 취지와 대상

-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업무 전달
-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서민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
-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임.



법률 홈닥터 **Law Home Doctor** 서민을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도움받을 수 있는 분야
 - 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걸친 도움이 가능
-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 대상자 맞춤형 법교육
 -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 법률 구조 기관 등 조력 기관 연계
- 신청 방법
 -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각 기관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 상담, 법교육 등 일정 예약

그간의 과정은?

- 일상에서 어렵게 법률과 부딪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정부에서 2012년도부터 법률 홈닥터를 운영하여 무료 법률 상담 진행
- 당초 20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올해 6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어 약 13만 건이 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 법무부는 법률 홈닥터를 지역별 인구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타 법률 구조 기관 유무, 기존 배치 기관과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균형 있게 선정

권역	배치 기관	연락처
서울	강동구청	02-3425-5638
	강서구청	02-2600-6530
	관악구청	02-879-7631
	노원구청	02-2116-3508
	도봉구청	02-2091-3009
	동작구청	02-820-9612
	마포구청	02-3153-8529
	서대문구청	02-330-1558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02-2021-1745
	양천구청	02-2620-3352
인천 경기	은평구청	02-351-7020
	종로구청	02-2148-1384
	인천 강화군청	032-932-7179
	인천 남구청	032-880-5910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032-437-7432
	고양 덕양구청	031-8075-5600
	광명시청	02-2680-6350
	남양주시청	031-590-8721
	동두천시청	031-860-2036
	성남시청	031-729-2493
강원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070-7878-9365
	안산시청	031-481-2592
	안성시청	031-678-3297
	오산시청	031-8036-7427
	이천시청	031-645-3855
	강원사회복지협의회	070-8766-9496
	삼척시청	033-570-3633
	속초시청	033-639-2632
	원주시청	033-737-2195
제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064-702-3782
	대전 동구청	042-251-6229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042-226-3711
	논산시청	041-746-6044
	서산시청	041-664-1739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아산시청	041-540-2213
	천안시청	041-521-3292
	충주시청	043-850-5959
	충북사회복지협의회	043-238-0843
광주 전라	광주 광산구청	062-960-3672
	광주 남구청	062-607-2242
	광주 서구청	062-360-7039
	순천시청	061-749-3394
	전남사회복지협의회	061-285-1161
	익산시청	063-858-9280
	전주시청	063-281-0309
	전북사회복지협의회	063-251-1860
	대구 달서구청	053-667-3541
	대구 동구청	053-667-6921
대구 경북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 북구청	053-665-3123
	대구 수성구청	053-666-2667
	경산시청	053-810-5925
	영주시청	054-639-6059
	포항시청	054-270-5754
	부산광역시청	051-888-3155
	부산 남구청	051-607-4317
	부산 사상구청	051-310-4317
	부산 수영구청	051-610-4028
부산 울산 경남	울산광역시청	052-229-2288
	경남사회복지협의회	070-4035-0068
	김해사회복지협의회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055-904-4004



새록새록 생각나는 그 맛 그곳에 가면 맛이 보인다



뜨거운 태양,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한여름이 되면 우리는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고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에 지쳐 평상시에는 이름만으로도 군침을 돌게 하던 음식도 쉽게 입맛을 돌게 하진 못한다.

무더운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올 여름 전국 방방곳곳 이미 유명해진 맛집과 숨겨져 있는 그 지방의 진주 같은 맛집을 찾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동행> 다섯 번째 호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주는 꿀 같은 선물, 무더운 올 여름 당신의 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맛집들을 소개한다.



복어 요리와 아바이 순대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곳 '북청아바이'

아바이마을에 위치해 있는 식당으로 복어 요리 전문점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아바이 순대, 오징어순대 등도 같이 판매하고 있다. 북국탕과 함께 순대를 곁들여 먹으면 맛이 일품이다. 마침 가게 근처에 천사의 날개 포토존도 있어 사진을 찍기에도 좋다.

주소 | 속초시 청호동 1095 10동 2반
전화번호 | 033-635-2795



고 노무현 대통령도 방문하셨던 맛집 '산골숯불 왕소금구이'

두툽한 흑돼지 목살 위에 커다란 왕소금을 얹어서 구워주는 고기집. 고기가 너무 두꺼워서 익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고기가 잡내도 나지 않고, 고소하고 맛있는 집이다. 가게 앞 정원에 굴나무가 있어 운치를 더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도 방문하셨던 식당이다.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525-3번지(신화역사로 988-17)
전화번호 | 064-794-3534



맛집의 냄새가 물씬 나는 '손으로 직접 누른 송원막국수'

깨가 잔뜩 올라가 있는 막국수에 취향에 따라 육수를 적정량 부어서 비비고, 제육이라는 이름의 보쌈 고기를 한점 올려서 같이 먹는 맛이 일품이다. 차가운 제육이라 조금 낫설지만 일반 제육과 달라서 오히려 색다르게 느껴지는 요리다.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363-1
전화번호 | 031-582-1408



엄마가 차려준 집밥 같은 느낌 '덕수식당'

김치와 계를 넣어 팔팔 끓여서 만든 계국지를 파는 음식점이다. 예능 프로그램 '1박2일'에 나온 후에 많이 유명해진 음식으로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인상적인 요리다. 다양한 밑반찬에 저렴한 가격까지!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느낌을 선사해주는 식당이다.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133-8
전화번호 | 041-675-6878



마늘로 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온누리식당'

마늘정식 세트를 시키면 다양한 마늘 반찬과 함께 나오는 마늘 떡갈비. 입에서 살살 녹는 식감과 더불어 한 입 베어물면 나오는 육즙이 입 안에서 감돈다. 마늘이 유명한 단양에 갔으면 한 번쯤은 들려서 먹어주는 것이 여행의 재미를 더해줄 것이다.

주소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79
전화번호 | 043-423-3311



상주 중화요리 맛집 '금문왕손짜장'

가게 이름은 '금문왕손짜장'이지만 맑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며, 낙지가 한 마리가 통째로 올라가는 해물낙지짬뽕이 더 유명하다. 비계가 적으며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운 탕수육도 맛이 있다. 거기에 주방 모습을 모니터로 실시간 보여주어 위생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주소 | 경북 상주시 계산8길 3
전화번호 | 054-532-1231



가장 아픈 곳에서 피어난
가장 따뜻한 이야기

소원

고민이 되었다, 망설여졌다. 잠잠해진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과연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혹 겨우 아문 곳에 다시 상처를 내고 잠잠해진 바다에 돌을 던지는 건 아닐까. 이 영화를 만든 감독도, 작가도, 그들을 연기한 배우들도 한 번쯤은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범죄들 중에서 어떤 범죄는 죄가 중하고, 어떤 범죄는 죄가 가볍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그 많은 범죄들 중에서도 유독 악하고 더 악하다는 말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흉악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회가 너무 낮설고 무섭다. 그런 사회 속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졸이는 일인지...
여기 한 소녀가 있다. 지금부터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가장 아픈 곳에서 피어난 가장 따뜻한 이야기



공장에서 일하는 아빠 동훈과 문구점을 하는 엄마 미희의 딸 소원은 비가 오던 어느 날 등교를 하던 중 수상한 아저씨를 만나게 되고, 우산을 씌워달라는 아저씨의 말에 잠시 고민을 하다가 씌워주게 된다. 아저씨를 착한 마음에서 도와주려던 소원은 학교를 코앞에 두고 변을 당한다.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공터에서 안면과 복부에 엄청난 구타와 수차례의 성폭력을 당하게 되고, 소원의 목을 조른 뒤 죽은 줄 알고 자리를 뜨자 소원은 힘겹게 112에 전화를 해 구조를 요청한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엄마와 아빠는 딸에게 남겨진 폭행의 흔적에 절규를 하고 만다. 끔찍한 일을 당한 소원은 인공항문을 연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 사건 이후 입을 다물게 된다.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너무나 쉽게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 상처받을 소원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피해 가족들의 인권이나 아픔은 배려하지 못하고 특종만을 외치며 기사화하는 기자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소원이가 소중한 소원의 이웃들은 그런 소원이가 사회에 노출 될까 노심초사하기도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났다면
 죄가 더 무거워지고 처벌이 더 강화되는데 음주를
 한 것이 왜 이러한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이 되고
 처벌을 약화시키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
 납득할 수 없고, 앞으로도 납득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상처받은 소원에게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범인을 잡기 어려우니 소원에게 직접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범인을 지목하게 한다. 그렇게 범인은 검거되지만 소원은 스스로, 그리고 사회의 시선으로 인해 두렵고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남자라는 이유로 아빠조차도 피하게 된다.

그러나 엄마와 아빠,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의 도움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소원은 미소를 되찾아 간다. 여기서 하나 더, 범인은 검거 되었지만 사건 당시 술이 취해 있었으며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면서 법원은 결국 심신미약이라는 이유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게 된다. 범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원망스럽고 수치스럽다는 생각에 누구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을 함께 겪게 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났다면 죄가 더 무거워지고 처벌이 더 강화되는데 음주를 한 것이 왜 이러한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이 되고 처벌을 약화시키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 이는 납득할 수 없고, 앞으로도 납득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다. 이 모든 일이 끔찍하고 가슴 아파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 8세 여아에게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고 참담하게 하여 고개 숙이게 한다.

이 영화는 성폭행을 당한 아이의 심리 상태와, 그런 아이를 조심스럽게 돌보면서도 현실을 함께 살아나가야 하는 부모, 그리고 같은 입장에서 소원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는 주변인들의 마음을 통해 비록 가장 힘든 사건을 그리면서도 그곳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며 사회는 아직 살만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담하게 전하고 있다.



가장 아픈 곳에서 피어난 가장 따뜻한 이야기

BOOK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범죄 심리

오운성 지음 / 지금이책

어느 날 갑자기 지옥처럼 찾아오는 범죄의 그림자, 범죄 심리 분석을 통해 범죄 위험에서 탈출하라!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범죄. 경악을 금치 못하는 범죄 수법과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볼 때면 영화보다 더한 현실에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든다. 범죄는 더 이상 낡은 텔레비전 속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 직장 동료, 가족, 그리고 바로 당신에게까지 범죄의 마수가 뻗칠 수 있다. 이 책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범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범죄 동기화된 범인의 심리를 파헤쳐보고, 가장 효과 좋은 예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이 책은 수많은 범죄 중에서도 여성 대상 범죄만을 다루었다. 약한 상대를 공격 대상으로 고르는 보편적인 인간 심리와 마찬가지로 범죄자는 약한 상대를 범행 대상으로 고른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 위험이 더 큰 것이고, 바로 그것이 특히 여성들이 범죄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쌓아야 하는 이유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어느 성폭력 생존자의 빛나는 치유 일기

은수연 지음 / 이매진

침묵을 깬 친족 성폭력 생존자의 생생한 자기 고백. “아저씨, 저 납치됐어요.” 수화기를 들고 여관 주인에게 구조 요청을 보낸 저자는 문이 열리자마자 정신없이 달려 경찰서로 도망쳤다. 가해자는 중형을 받았고, 끝까지 ‘좋은 아빠’인 척하는 가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뒤로 하고 저자는 9년 동안 이어진 성폭력의 고리를 끊어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폭력의 흔적과 상처는 해결되지 않은 채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남았고, 저자는 긴 세월을 그것과 맞서 싸워야 했다. 이 책은 그 상처를 글로 풀어내며 다독여온 여정인 동시에, 성폭력과 싸워온 치열한 분노와 고발의 기록이다.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친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질러온 성폭력, 가정 폭력, 폭언과 폭행, 초경통과 함께 겪어낸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 탈출했다 다시 잡혀오기를 반복하는 동안 피해 사실을 눈감고 가해자에게 저자를 돌려보낸 주변 사람들. 프롤로그에서 일러두고 있듯 이 책에 기록된 일들을 읽는 것은 ‘보기만 해도 힘든 오지 탐험 다큐멘터리를 보는 일’ 같을지도 모른다. 가해자들은 결코 입을 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자신이 글로 남기기로 했다는 저자는, 다시 떠올리기도 힘들 폭력의 기억들을 용감하게 마주보고 되새기며 낱낱이 고발한다.

그렇지만 ‘생존자’로서 저자가 지닌 생명력과 힘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함께 아픔을 견뎌낼 수 있게 도와준다. 저자는 때로는 마음껏 욕하고, 때로는 수치심이나 버거움을 숨기지 않고 토로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며 살아남아온 힘겨운 과정을 거침없이 펼쳐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서울		
센터명	주소	전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06590)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107호	02-596-1295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06594)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110호	02-534-4901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856)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02호	02-455-4954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08088)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12호	02-2645-1301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01322)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19호	02-3296-4995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207)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별관 102호	02-3270-4504

경기 / 인천		
센터명	주소	전화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11616)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검찰청 제1신관 243호	031-820-4678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41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고양지청 414호	031-932-8291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22220)인천시 남구 소성로 163번길 25 인천지방검찰청 1122호	032-860-4518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14602)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101호	032-329-2580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16517)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143호	031-210-4761
성남광주하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14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별관 152호	031-715-0090
여주이천양평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638)경기도 여주시 여주읍 현암로 21-1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101호	031-885-1188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7901)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5(비전동 846) 평택시도시공사 內 1층	031-656-2828
안산광명시흥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472)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807호	031-475-3310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1405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 수원지검 안양지청 107호	031-387-0050

강원		
센터명	주소	전화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24342)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8 춘천지방검찰청 201호	033-244-0335
강릉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463)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13호	033-641-4163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6478)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39(무실동 1798)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07호	033-742-3100
속초범죄피해자지원센터	(24825)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209	033-638-1111
영월범죄피해자지원센터	(26228)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 1길 34	033-375-9119

대전 / 충청		
센터명	주소	전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35237)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209호	042-472-0082
홍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32226)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318호	041-631-4915
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32568)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4-13 대전지검 공주지청 102호	041-856-2828
논산부여계룡범죄피해자지원센터	(32930)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304호	041-745-2030
서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31988)충남 서산시 공림4로 2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312호	041-660-4377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31125)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길 천안지청 본관 1층(천안) (31580)충남 아산시 시민로 457번길 동우빌딩 5층(아산)	041-556-9494 041-533-6090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8624)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208호	043-288-0141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7357)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08호	043-856-2526
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27165)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179 오화빌딩 2층	043-643-1295
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29150)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항간로 77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107호	043-742-3800

대구 / 경북		
센터명	주소	전화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42027)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검찰청 2315호	053-740-4440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42635)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4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709호	053-573-7400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36752)경북 안동시 강남로30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115호(민원실 안)	054-854-7600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38145)경북 경주시 화랑로 8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본관 305호	054-773-4595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37573)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13호	054-276-8112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39613)경북 김천시 김천로 150 2층(김천) (39371)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39 구미시시민복지회관 2층(구미)	054-430-9091 054-462-9090
상주문경예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37160)경북 상주시 복천로 17-9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109호	054-533-6047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37339)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9호	054-830-4548
영덕울진영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36427)경북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5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112호	054-730-4679

부산 / 울산 / 경남		
센터명	주소	전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47510)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117호	051-558-8893
부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4805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 부산지방검찰청 부산동부지청 417호	051-781-1144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44643)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별관 122호실(울산) (50619)경남 양산시 북안남4길 13-19 1층(양산)	052-265-9004 055-366-9011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51456)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검찰청 322호	055-286-8286
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52676)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7호	055-748-1301
통영거제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53029)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02호	055-648-6200
밀양창녕범죄피해자지원센터	(50424)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12호	055-356-8272
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50129)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별관	055-945-2325
마산합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51736)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402호	055-242-6688

광주 / 호남		
센터명	주소	전화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61441)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 209호	062-231-4752
목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58671)전남 목포시 정의로 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1층 108호	061-279-1230
장흥강진범죄피해자지원센터	(59330)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43	061-863-3636
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7932)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526호	061-722-2544
해남완도진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59031)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별관 2층	061-537-1301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54889)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063-276-8804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54079)전북 군산시 법원로 7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03호	063-452-3012
정읍범죄피해자지원센터	(56172)전북 정읍시 수성6로 27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412호	063-534-8295
남원순창장수범죄피해자지원센터	(55761)전북 남원시 용성로 59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111호	063-634-2828

제주		
센터명	주소	전화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6322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복5길 3 제주지방검찰청 216호	064-756-7004



당신의 슬픔은
내일을 희망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범죄피해자 구호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77-1295